

- 주요 뉴스: 러시아, 우크라이나와 조건 없는 대화 합의 미국 등은 러시아에 SWIFT 제재
 -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우크라이나 침공의 미국 경기 전망 영향은 제한적
 - ECB,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산매입 종료 시점의 불확실성이 증가
 -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, 경제안정을 위한 거시정책을 강화할 방침
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통화긴축 전망 등이 영향
주가 상승[+0.8%], 달러화 강세[+0.6%], 금리 상승[+3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주중반 이후 저가매수 유입 등이 배경
 유로 Stoxx600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1.6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수요 증가 등으로 강세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.5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반영
 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4bp 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0.5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2/25일	2/18일	전주말대비			2/25일	2/18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384.7	4,348.9	0.82%	국채 금리 10y	미국	1.96%	1.93%	3bp
	유럽	453.53	460.81	-1.58%		독일	0.23%	0.19%	4bp
	중국	3,451.4	3,490.8	-1.13%	CDS 5y	한국	29bp	28bp	1bp
	일본	26,477	27,122	-2.38%		중국	61bp	58bp	3bp
	한국	2,676.8	2,744.5	-2.47%	위험 지표	EMBI+	-	428	-
환율	달러지수	96.62	96.04	0.60%		VIX	27.59	27.75	-0.58%
	유로화	1.1268	1.1322	-0.48%		WTI유	91.59	91.07	0.57%
	엔화	115.55	115.01	-0.47%	원자재	구리	447.2	452.0	-1.05%
	위안화	6.3175	6.3256	0.13%		금	1,889.3	1,898.4	-0.48%
	원화	1,201.6	1,195.9	-0.47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러시아, 우크라이나와 조건 없는 대화 합의. 미국 등은 러시아에 SWIFT 제재

-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 국경에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예정. 관련 내용은 미공개. 한편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대항하여 핵무기 부대에 경계 태세 명령을 발동. 이에 일부에서는 양국 간 긴장에 따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
- 미국 등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(SWIFT) 결제망 퇴출을 결정하고, 푸틴 대통령도 제재 대상에 포함.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 고립 압력을 강화. 다만 러시아 중앙은행은 다양한 금융 제재에도 은행시스템은 안정적이라고 발표
-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, SWIFT 대신 Telex 활용 혹은 중국을 통한 우회 결제가 가능하다고 진단. 한편 S&P는 러시아 장기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(BBB→BB+)했고, 무디스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
- CNAS의 Edward Fishman은 SWIFT 결제망 퇴출은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. Financial Times는 러시아가 6300억달러 규모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나, 이를 활용하여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
- 반면 전 미국 국방부 관료 Richard Nephew는 해당 조치가 즉각적으로 러시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지만, 이와 관련된 영향이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. 한편 일부에서는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미국 달러화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우크라이나 침공의 미국 경기 전망 영향은 제한적

- 블라드 총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7/1일까지 1%p의 금리인상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,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경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상당히 작다고 평가. 또한 더 이상의 확전은 없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

■ ECB 총재, 물가안정과 금융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조치가 가능

- 라가르드 총재는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. 다만 이번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투자와 소비 부문이 위축되며 경제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

■ ECB,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산매입 종료 시점의 불확실성이 증가

- 관계자들에 따르면, 자산매입 축소의 가속화를 지지하지만 인플레이션 등으로 자산매입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발언. 특히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(2%)를 상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
- 벨기에 중앙은행 분취 총재는 시장의 예상과 같이 자산매입 종료는 금년 3/4분기, 금리인상은 금년 말 혹은 내년 초를 전망한다고 언급.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면 통화정책 목표 달성에 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부연
-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금년 유로존 GDP가 0.3~0.4%p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. 상황에 따라 1.0%p 감소도 가능하다고 첨언

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, 경제안정을 위한 거시정책을 강화할 방침

- 경제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위험요인 차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, 국내수요 촉진과 시장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

■ 중국 주요 국영은행, 러시아산 원자재 매입을 위한 대출을 제한

- 공상은행과 중국은행이 해당 조치를 단행. 이는 중국이 미국과 EU의 제재 강화 등으로 러시아와 경제 측면에서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

■ OPEC+, 2022년 원유시장의 공급 과잉 규모 예상치를 하향 조정

- 해당 예상치를 일일 130만배럴에서 낮춰 일일 110만배럴로 제시. 한편 관계자들은 OPEC+ 국가들이 기존의 공급 계획을 유지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공급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2/2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월 내구재 수주(전월비): 1.6%, '21년 12월(1.2%), 예상치(0.8%)
- 미국 1월 잠정주택판매(전월비): -5.7%, '21년 12월(-2.3%), 예상치(1.0%)
- 미국 1월 개인소득(전월비): 0.0%, '21년 12월(0.4%), 예상치(-0.3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2/2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월 상품 무역수지, 도매재고, 2월 시카고 PMI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우크라이나 사태,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탈달러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- Financial Times**
(China, Russia and the race to a post-dollar world)
 - '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 서방 은행과 러시아 금융기관 간 거래는 기존 대비 80% 감소. 이러한 금융시스템 분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제재로 심화될 전망.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의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를 발표
 - 중국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위안화 기반의 탈달러화 금융시스템 설립이 목표. 중국으로의 자본이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촉진할 가능성. 다만 위안화 중심의 금융시스템은 개방성 및 유동성 부족 등의 단점이 내재
- **글로벌 식품가격 상승, 개발도상국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- WSI**
(High Food Prices to Pressure Inflation This Year)
 - '21년 이후 글로벌 식품가격은 기후 영향에 따른 생산 감소와 주요국의 구매력 강화 등으로 상승. 개발도상국의 경우 가계지출에서 식품부문 비중이 높아 식품가격 상승은 여타 부문에서 소비가 감소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
 -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기회복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. 아울러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주요 곡물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데, 이는 양측의 경기회복 차별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
- **미국의 반도체 규제, 러시아의 첨단산업 발전 등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 - Financial Times**
(Chip sanctions aim for Russia's military and its tech industry hopes)
- **미국의 고물가 지속, 바이든 정부의 정책신뢰를 훼손 - 블룸버그**
(inflation Pain Means Biden Gets No Credit for Roaring Economy)
- **연준의 주택저당증권(MBS) 대량 매각, 실질금리 상승 등을 초래할 소지 - Financial Times**
(Investors brace for flood of mortgage bonds when Fed trims balance sheet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